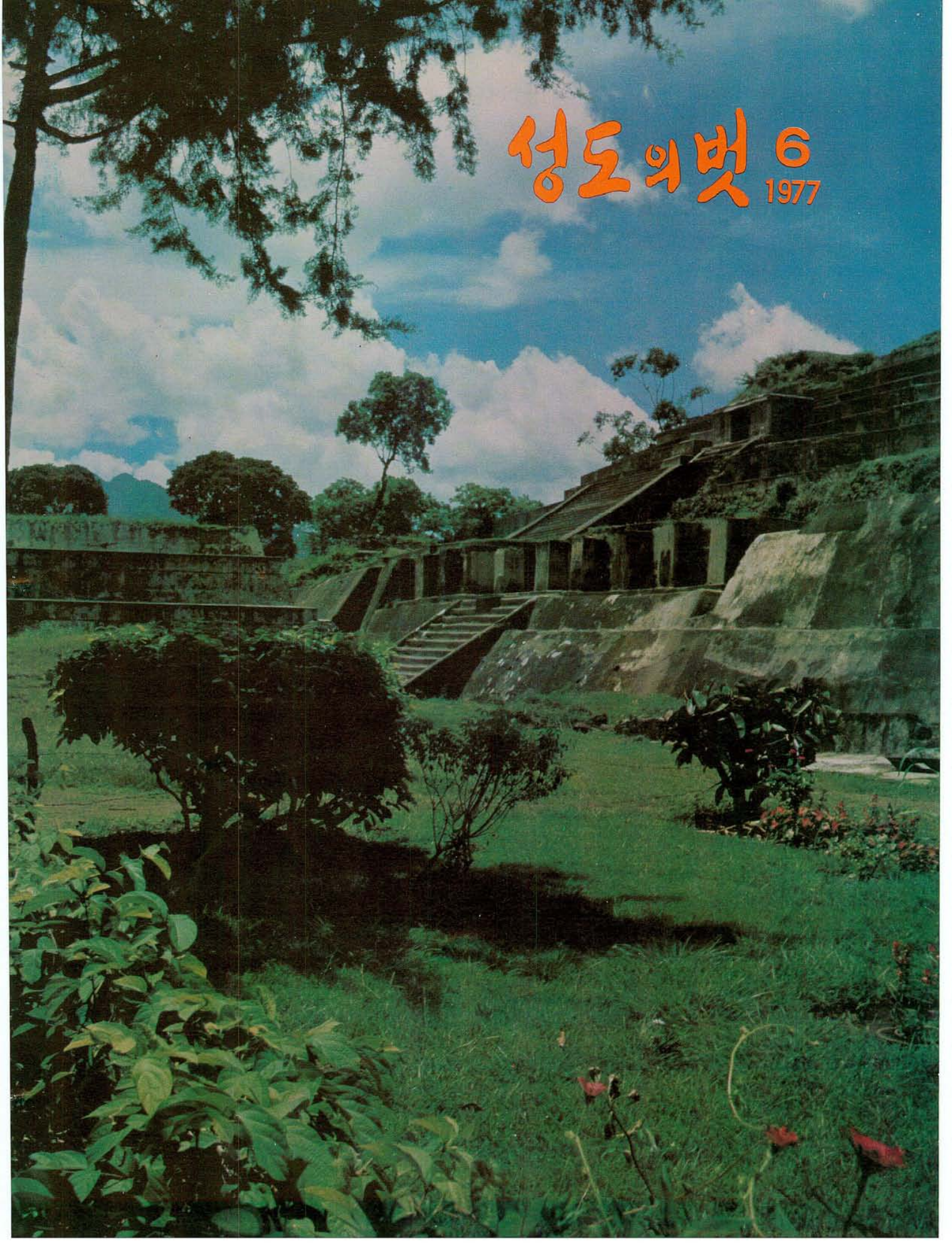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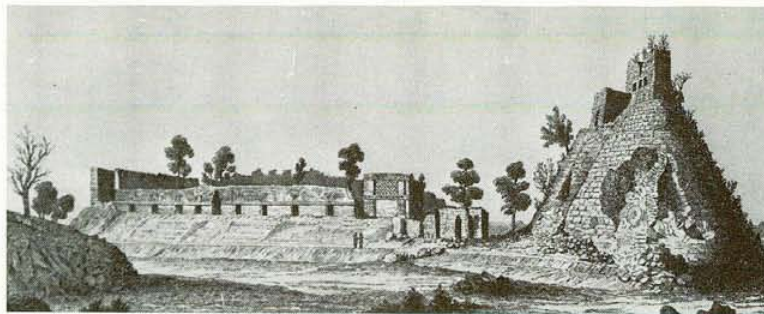


성도의 빛 6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처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글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클리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글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햄스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7년 6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6호
통권 143호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틸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차 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에프 엔지오 부쉬----- 3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마야 문명-----
제임즈 에스 팩커----- 6

어느 실업가와 병커 감독-----
윌리엄 하틀리----- 8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10

물문경의 영웅-----13

경건, 친구가 친구에게-----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14

용감했던 순간-----키이드 크리스티슨-----16

안식일 상자-----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슨-----18

심심풀이-----20

철주를 내려치라-----비 로이드 포엘만-----21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24

그리스도의 교수법-----데오 이 맥킨-----26

모범의 힘-----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28

지역 지도자 메시지-----유진 피틸 서울 선교 부장-----30

교회 및 지역 소식-----31

표지 설명: 본 6월호의 전후 표지에는 존 로이드 스티븐스가 1839년부터 1841년까지 탐험한 유적들을 실었다. 6 페이지 기사 참조.

© 197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 2 보좌



데 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받던 박해를 피해 피신해 온 바울은 아텐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행 17:16) 몹시도 분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주님이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할 바를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큰 경험을 통하여 알았읍니다.(행 9장 참조) 그 성에서 우상을 보았을 때 그의 분을 둔군 것도 바로 이러한 지식 때문이었읍니다.

그러한 지식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텐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게 한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와 또

몸의 부활”(행 17:18)을 가르쳤읍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말장이라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행 17:18)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러 주변에 몰려 들었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사도행전 17:22~29)

바울의 이와 같은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행해졌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

**오늘날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멀리 계시거나
상상할 수 없는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이해심이 충만한
아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위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과학과 산업 분야에서는 대단한 발전과 변화를 보였으나 바울의 설교 내용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미지의 하나님이고, 무지한 상태로 경배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질 것이 아니나 아직도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광대무변의 에너지”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되는 큰 원인” 또는 “우주적인 자각”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울이 지녔던 것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서 멀리 떨

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중 이러한 지식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그들은 유혹을 이길 힘을 얻고, 위험에 처했을 때 용기를 얻으며, 외로울 때 동반자를 얻고,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이러한 지식은 혼돈과 무질서의 환경 속에서도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 주는 영혼의 닻 역할을 해 줍니다. 그들은 그러한 혼돈의 상태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값진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 이는 그가 간 길을 걷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시는 관문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것으로, 그러한 지식을 얻기에 필요한 일을 행하겠다는 결의로 나타납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한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에서 우리나와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의 기도가 헛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분명한 지식이 기도의 결과로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무서운 불안과 비극으로 가득찬 험난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멀리 계시거나 상상할 수 없는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이해심이 충만한 부모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지식을 얻고 그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도록 소망과 용기와 겸손을 지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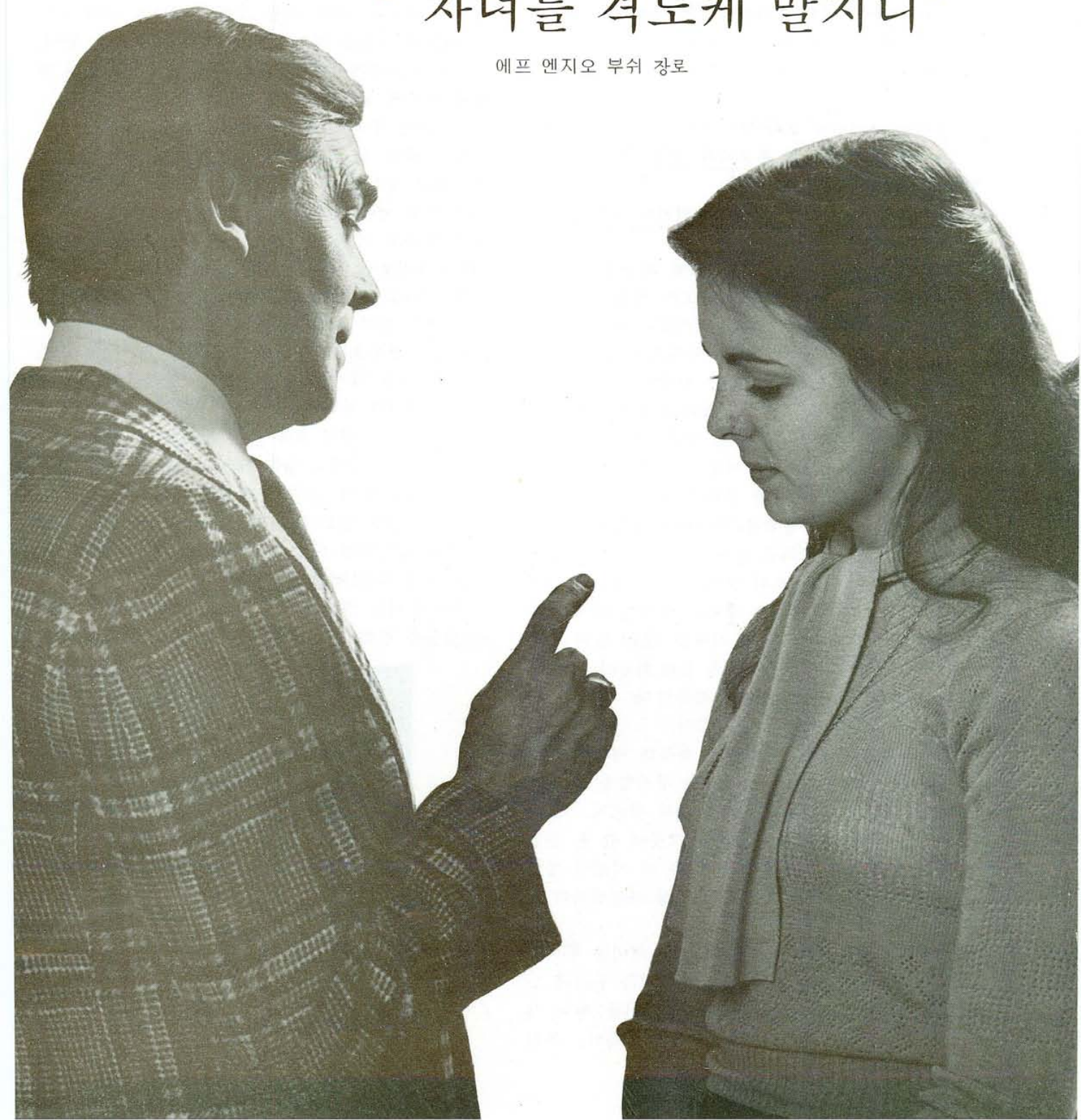
아 내와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그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보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자녀들이었다. 맏아들인 마커스는 열 아홉이 되어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마티아스는 열 일곱살로 직업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큰 딸인 마야는 열 여섯살이다. 막내인 다니엘은 열 두살이며, 이제 아론 신권을 받았다.

우리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특히 어린 자녀들의 미묘한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속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은 시작되면서부터 필요한 모든 속성을 타고 나며, 약간의 결여된 부분을 본능이 보충시켜 준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는 다르다. 인간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영양과 살핌 뿐만 아니라 영적이나 도덕적인 발달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되어야 하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골 3:14)에 찬 분위기로 인도되어야 함을 믿는다. 바울이 말하는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관계에 관한 설명을 더 읽어 보기로 하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골로새서 3:18~21)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우며, 그들을 격노케해 의미없는 반항적인 삶으로 이끄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에서 큰 힘을 떨쳐, 선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고 있다. 학교나 대중 매체는 물질주의, 질투, 불명예, 부도덕, 슬픔 등을 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거짓 종교와 이론이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우리의 외적인 생활 상태를 개선하고 편한 삶을 누리려고 시간과 정력을 바치다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망각하곤 한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느 정도는 개화되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대개는 성스러워진 가정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한데, 이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도 한때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신혼 초인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준 선교사의 부모들에게 우리는 감사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와 그곳에 갈 수 있는 권능 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가족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주며,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해 준다. 우리 물론 선조들이 광야를 지나 사막 중에 대문명을 건설하도록 명을 받았듯이, 우리

도 영적인 사막 속에서 살아있는 국가를 건설하도록 명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신권의 권능이 없다면, 세미나리와 같은 보조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부모인 우리도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복음의 구원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사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린 자녀는 완전할 수 없다. 어린이에게는 많은 결점이 있으며,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노케 하는 행위를 하기도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궁극의 목표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과오, 결점, 실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복음 교사인 나는 한 젊은이가 부모 앞에서 자기는 칭찬을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네가 칭찬받을 짓을 했다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을꺼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한 말은 얼마나 자녀의 마음을 격노케 하겠는가?

주변의 잘못을 보는 데는 우리의 눈이 참으로 빠르나,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히 인도되었을 때 커갈 수 있는 잠재성을 내다 보는 데는 참으로 느리다.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다. 그들은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용기를 넣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태도를 바꿀 힘을 얻겠는가?

아내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어린 자녀는 잘못을 범하고 결점을 지니며, 열번 이상 시정을



해 주어도 틀린 일을 해야 할 권리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하려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었다. 어린 자녀가 낙담하지 않도록 이해하고, 옹호하며, 용서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바람직한 재능을 개발하려는 그들의 첫번째 작은 의도가 겉으로 나타내지고, 말로서 표현되며, 찬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훌륭한 성품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더욱 강하게 해 주고, 슬플 때 이를 함께 나누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 우리의 목표를 재 정리하게 도와 주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존심과 가치를 판단 할 수 있게 인도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독일에서 흔히 말하듯이 학교 선생처럼 과오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자녀들 스스로 그들의 과오를 발견하게 돕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어린이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미 시정의 첫 단계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나는 아들이 과오를 범했을 때 스스로 벌을 받도록 요청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한달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한 결정이 우리에게 좀 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아이가 할머니댁을 방문해서도 스스로 텔레비전 프롤을 보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스스로를 잘 처신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위협속에 빠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은 성인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모범과 위선에 찬 생활 태도로 악영향을 미친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를 볼 때 성스럽고 거룩한 인간의 기원을 보게 된다. 어린이를 키우는 일부 부모의 무지함과 사악함을 볼 때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자녀를 의롭게 보살펴야 할 의무는 우리가 영적이며, 순수하고, 헌신과 사랑에 가득차,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동반자가 되려는 부단한 매일의 노력과도 견줄 수 있다.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자녀를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나는 어느 교회 지도자로부터 그가 매일 저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의롭게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조용한 기도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소한 일로 인한 걱정이 전혀 없이 항상 합당함과 조화 속에서만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매일 경전을 읽고, 작은 결정이라도 주님의 영에 인도되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끄는 습관을 갖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일상 되풀이 되는 가정의 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가정의 밤을 가져 본 적이 있다. 마지못해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장소와 행사의 순서를 바꾸고, 놀라운 순간들을 맛보며, 하나의 목표 즉 참여자의 가슴속에 보 다 큰 사랑, 희망,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녀들이 계획과 준비 과정에 참여할 때 가족의 영적인 자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았다. 우리는 가족 회의가 단합과 질서를 위해 참으로 훌륭한 기구임을 알았다. 한번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가정 생활을 향상하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며, 기쁨을 크게 늘일 수 있는가를 토의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가졌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로 우리가 갖는 아침 가족 기도는 사랑과 헌신에 찬 분위기이지만, 잠에서 완전히 깨어있지 않고, 준비도 없고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우리는 전보다도 15분 일찍 일어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함께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경이나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읽었다.

자녀들의 약속으로 더욱 굳게 다져진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었다. 이는 우리의 영이 생명수로 깨끗해진 후 중요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매일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큰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막내 아들이 제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나에게 와서 불에 입을 맞추며 “아빠가 좋아요”라고 말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른다. 딸 아이의 얼굴을 덮은 미소에서 행복함을 볼 수 있을 때 열 일곱 살난 아들이 “아버지가 옳아요”라고 말할 때, 장남이 우리에게 대해 신뢰심을 보일 때,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을 맛보곤 한다.

우리는 부모로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대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한다. *

에프 엔지오 부쉬 형제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현재 독일 듀셀돌프 스테이크, 도르트문트 와드에 속해 있다.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마야 문명

제임스 에스 팩커

뉴욕의 법률가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요셉 스미스는 평생 만나본 적이 없으며, 스티븐스가 물문경을 읽었다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스티븐스가 생전에 이루어 놓은 가장 주목할만한 업적이 그의 동료 뉴욕인인 요셉 스미스에 의해 번역된 물문경을 실제로 증거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업적은 1839년 11월 찌는듯한 어느 날 혼두라스 장굴 속에서 존 스티븐스와 두 명의 원주민이 돌상을 발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프랜시스코가 발과 다리 부분을 찾아냈고, 브르노가 몸체를 찾았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날 빅터 더블류 본 하겐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학문인 미국 대륙의 고고학이 태동하였다”라고 적었다. 존 로이드 스티븐스가 바로 미대륙 고고학의 창립자이다.

스티븐스는 이미 유럽, 근동, 이집트, 아라비아, 성지 등을 여행하였고 그곳에 관한 기사를 썼다. 그러나 고대 문명에 대한 집념은 그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다.

런던을 방문한 스티븐스는 폐허의 흔적만 남은 멕시코의 파렌크라라는 도시를 방문한 캐피탄 델 리오의 저서, “고대 도시에 관하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후에 멕시코에서 사라진 두번째 도시인 옥스말에 관해서도 알

게 되었다. 1835년 그는 폐허가 된 혼두라스 도시인 코판에 관해 설명한 전문지를 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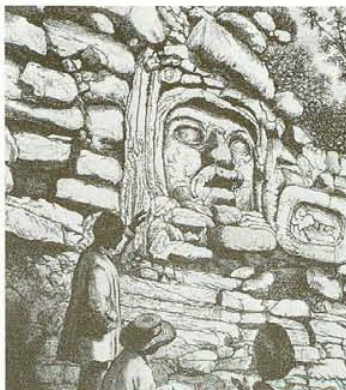
파렌크, 코판, 옥스말, 등 그의 마음은 중앙 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전설적인 문명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놀라운게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대중을 열광시키기는커녕 아무도 코판에 관한 기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잃어버려진 도시를 찾기로 결심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학자나 대중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인디안은 야만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게 중론이었다.

사실상 학자들의 주장을 논박할 서류상의 증거는 거의 없었다. 요셉 스미스를 비방하는 자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표절할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가 남의 글을 표절하였다고 비난하였다. 1839년대에 교육도 많이 받고 부유했던 스티븐스도 고대 미대륙 문명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가 참고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요셉 스미스의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이렇듯 자료가 없자 스티븐스는 한때 회의에 빠지기도 했으나 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먼 친척이며 유명한 화가였던 프레데릭 캐더우드와 함께 중앙 아메리카를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들의 첫째 목표인 코판은 진흙벽으로 지은 오두막집이 있는 보잘것 없는 촌락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발견의 일보 직전에 온것이다. 원주민 안내자가 이들을 장굴 속 강둑까지 안내하였다. 강 뒤쪽에 100피트 높이의 석벽이 있었으니, 이것이 고대 코판의 한쪽 끝 부분이요, 역



사상으로는 새로운 신기원의 일각이었다. 그들은 재빨리 강을 건너 벽을 기어 올라가 드디어는 잊혀진 문명의 유적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무성한 숲을 헤치고 들어가 약 14피트 높이의 정방형 석판 위에 닿게 되었는데, 네면이 아름답게 조각된 것이 이집트에서 본 가장 훌륭한 비석 세공 솜씨와 비길만 하였다.

“1830년 당시의 역사가들은 미대륙은 야만인들의 거주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만인들은 이러한 구조물을 세우지 못했다. 야만인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세공 솜씨를 갖지 못했다. 우리가 인디안들에게 누가 그들을 지었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퀴엔 사베(아무도 모른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서반구의 학자나 역사가들은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유럽이 암흑 시대로 전락할 때 이들 코판이나 마야인들은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들은 장글을 정부하고 보석으로 장식한 칼라에 반짝이는 구슬을 뿌려 놓은 듯이 유카탈 전역에 그들의 찬란한 도시를 건설했다. 구세계에는 이들의 행위나 역사가 이들이 살고 있던 조용한 장글과도 같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원후 900년이 되기 전에 마야인들은 돌연히 신비하게도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839년 스티븐스와 캐더우드가 혼두라스의 장글 속에 코판을 찾을 때까지 이곳은 천여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장글이 너무도 험했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 살피지는 못했다. 그들은 파묻히지 않은 우상이나 석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것은 30톤이나 되는 단일석으로 꽃, 짐승 등의 무늬로 조각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

진 이것은 마야 문명의 극치를 이룬다.

2년간의 여행 끝에 스티븐스와 캐더우드는 코판, 파렌크, 옥스말, 치첸, 이트자와 40여 마야 유적을 발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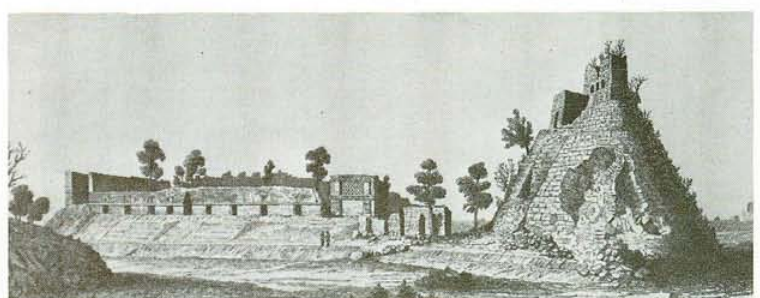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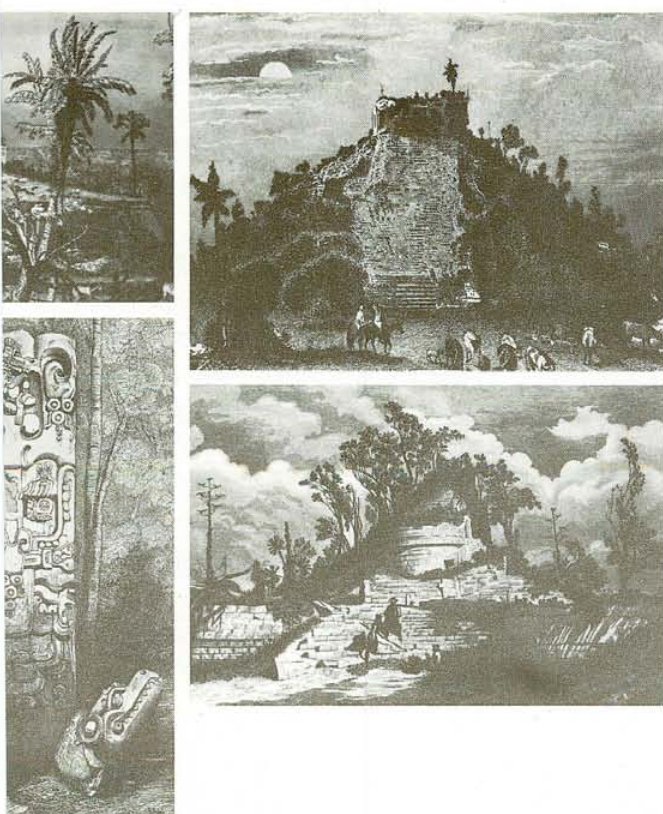
신비가 깊어질수록 스티븐스의 반응은 열을 더해 갔다. 파렌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홍망성쇠를 모두 겪고 최고의 황금기를 맛보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간 문화인이요, 개화인이며, 독특한 백성인 이들이 세운 유적이 이곳에 있다. 인간과 이들을 연결한 고리는 단절되고 잃어졌으며, 이제 남은 이 유적이 지상에 남긴 그들의 유일한 발자취가 되었다.... 세계사의 찬란한 장을 모두 뒤져 보아도 수마일이 나무로 뒤덮여 구별조차 할 수 없었으나 우연하게도 발견된, 한때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이 도시만큼 강한 인상을 나에게 준 예 를 나는 일찌기 찾지 못했다.”

이러한 신비를 발굴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이 보인 노력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신사라는 사람은 모두 나라 안에만 머물던 때에 이 두 사람은 기아, 열병, 곤충과 싸웠고, 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직전의 상처로 고생하였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였을까?

역사는 스티븐스를 위대한 인물로 꼽는다. 그의 공헌은 로제타석을 발견한 샴폴리옹이나 트로이 시를 발굴한 슈리만과도 필적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스티븐스의 공적은 더욱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요셉 스미스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나, 물문경의 광야에서의 외침은 세계를 휩쓸고 간 리하이 백성에 대한 스티븐스의 물질적인 증거로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



놀라우리만치 자세하게 그려진 이 그림은 존 로이드 스티븐스가 중미, 치아파스, 유카탄의 마야 유적을 탐사할 때 동행했던 영국인 미술가 프레데릭 캐더우드의 작품이다.

어느 실업가와 벙커 감독

윌리엄 하틀리 장로



면 회 시간은 5분간 뿐입니다.”라고 비서는 솔트레이크 사업가인 니파이 엘 모리스를 시카고의 실업자인 토마스 엔 맥콜리 사무실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실업계의 거물에게 방문자의 명함을 건네 준 비서는 방문 시간이 5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는 듯이 방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오신 분이라고요”하며 그 실업가는 말했습니다. “모리스씨, 앉으십시오. 유타에서 오셨다니 몇년 전 그곳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들려 드리지요.” 모리스 형제의 방문 이유를 묻기도 전에 맥콜리씨는 바쁜 사업 일정을 취소하고 한 시간 이상 그의 머리속에 잔적되었던 감동적인 경험담을 들려 주었습니다.

맥콜리씨는 젊었을 때 동부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의 과로로 그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 좋은 서부 지역의 야외에서 일년에 육개월을 보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인 맥콜리씨는 그의 사업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의사와 함께 서부로 떠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두 사람은 포장 마차를 타고 록키 산맥을 여행하며 야영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거의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맥콜리씨는 체온이 40도로 오르면서 오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사는 급히 마차를 물고 유타 서남쪽 물몬 정착촌인 네바다의 벙커빌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물몬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자존심을 죽이고 이 지역 농부인 에드워드 벙커 이세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사는 감독으로, 마을 이름인 벙커빌은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들 낯선 사람들은 이 집이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나 호텔의 구실을 한다는 것을 알리 없

었습니다. 1883년부터 1908년까지 감독으로 있던 벅커 형제는 지역 의사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의 부러진 다리와 손의 절단 수술, 상처 치료, 심지어 풀베는 기계에 잘린 발의 정형 수술까지를 도맡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전통에 따라, 길손을 환대하는 감독의 성품으로 인하여 벅커 가족은 거의 가족끼리만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자도 원하는 기간동안 이 집에 머물 수 있으나 모두 가족의 일원처럼 대접받아야 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이 벅커가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들 동부인들은 이곳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차와 말들도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대접받았으며, 침구와 일용품도 받았습니다. 벅커가의 거실은 임시 병동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벅커 가족과 의사는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병세가 서서히 호전되어 갔습니다. 의사는 환자와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환자인 젊은 사업가는 침대 위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이 성실한 말일성도 가정의 일상 생활을 모두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거실의 문이 열리면 맥콜리씨는 옆 방에서 하루의 고된 농사 일을 마친 가족이 음식을 축복하고 식사를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가족이 모두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며, 때로는 감독이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보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환자의 상태가 크게 좋아져 다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맥콜리씨가 떠나는 날 아침 벅커 가족들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기상 소리가 손님의 잠을 깨우게 되었는데, 이들은 가족이 그들을 위해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식당 방에 모였고, 감독은 겸손한 자세로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경건하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손님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보다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특별히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맥콜리씨는 그의 의사 친구가 눈물을 감추며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맥콜리씨는 자신을 위하여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눈물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리스 형제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나는 평생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가족은 각기 자기의 일터로 갔고, 벅커 감독은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려 거실로 들어 왔습니다. 맥콜리씨와 악수를 하면서 그는 동부의 손님들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와 의사가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되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벅커 감독님 정말로 큰 신세를 졌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 감독님의 친절과 환대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인데, 제 성의를 받아들이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라고 맥콜리씨가 말했습니다.

벅커가의 형편이 썩 운택하지 못함을 안 그는 그의 그러한 제의를 친절하게 거절하는 감독을 보고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뿐이었습니다.”라고 물론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은 가고 싶지가 않군요.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제의에 친절한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벌써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구태여 말씀드리라면 제가 기쁘게 선생님을 도운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입니다.”

벅커 감독은 그것으로 서로의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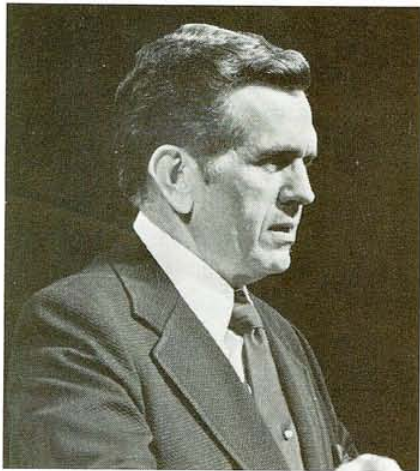
그러나 맥콜리씨는 그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빛을 결코 잊을 수 없어, 그 후 몇년 동안 말일성도를 도움으로써 빛을 갠었습니다. 유타주에서 브리감 영의 기념비 모금 운동이 있을 때에도 맥콜리씨의 이름이 현금액 1,000불과 함께 현금자 명단의 맨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의회에서 유타주 상원 의원인 리드 스무트의 소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유력한 재정이던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써가며 물론을 위해 부통령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협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타 및 교회 지도자에게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07년 경제 공황 때 저명한 물론인 두 사람이 어려움에 있자 그는 그들에게 약속 어음을 끊어주고 상환 의무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5분간의 약속을 한 시간 이상 늘리는 일이 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모리스 형제와 같은 유타인을 만나면 네바다의 황무지에서 사경을 헤메든 자신에게 전에 보지도 알지도 못하던 물론 감독이 베풀어 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맥콜리씨의 설명대로 그것은 그의 재산이나 권세가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스 형제는 이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아 즉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20년 후인 1943년 그는 벅커 감독의 후손에게 편지를 써 이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이 가족은 이 사실을 가족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여러분이 되돌아 온다면,
곧 여러분은 전에 떠난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모임은 킴볼 대관장님께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갖기 전에 나는 대관장님께 길이가 다른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나는 대관장님으로부터 준비한 세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을 해 달라고 쓴 종이 쪽지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어느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려고 콜로라도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모임이 거의 다 끝나가 시간이 십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말씀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나를 소개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몸을 수그리며, “남은 시간을 다 맡아 해 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일본 동안 간증을 드리고는, 내 자리로 되돌아 왔읍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킴볼 대관장님을 다시 소개할 때, 나는 그가 쪽지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내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희생)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그에 순종하는 뜻에서 다시 앞으로 나섰읍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훌륭한 대회의 끝을 맺게 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설교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내적인 덕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다운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생활하는 데 극히 중요한 영적인 진보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련 장로들로 지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의 부름이란 위엄과 명예와 영적인 권유와 권능이 깃든 부름입니다. “수련”이라는 말에는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을 빌어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이외에도 이 메시지가 적용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에 속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왜 길을 이탈했지?”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좀더 일찍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게는 너무 늦었어.”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무 많이 변했어.”

무엇인가 결말을 내려야 할 계기에 이르면, 이와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라, 엄두도 못내겠는 걸.”

나는 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더 일찍 알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난 주일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체험했는데, 오늘 이에 관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차 대전 당시에, 나는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있었습니다. 태평양 제도에서 복무를 마친 후, 나는 점령군으로 일본에서 일년을 보냈읍니다. 이때 나는 일본말을 몇마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방향을 묻거나 먹을 것을 청할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보통 인사말과 수지의 감사 표시를 할 수 있었으며, 다른 여러 교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이 없을 때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데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들에게서 몇마디의 말을 배우면서 나는 일본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6년 7월에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침례 의식이 베풀어졌읍니다. 타츄이 사토 형제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부할 하였지만 나는 사토 자매를 침례해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본에서 즐겁게 지냈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고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근 4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전쟁도 끝났으므로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와서, 나는 다시는 일본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교육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로 바쁘게 지냈읍니다. 내 주위에는 일본 사람들이 없었으며, 따라서 내가 배운 말을 사용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26년이라는 먼 과거에 묻혀, 영원히 잊혀지고 가버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경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아보 선교부장과 함께 선교부장 집에 있었는데, 어느 일본인 선교사가 그에게 일본말로 말을 했습니다. 아보 선교부장은 급한 일이 생겼으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그 선교사

와 함께 일본말로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서류에서 한 문장을 가리키며, “고레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문장을 다 끝맺기전에,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고레와 난 데스까?’ 그가 그 장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고레와 난 데스까’란 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뜻입니다. 26년 후에 일본에 돌아와 겨우 하루 밤을 지낸 뒤에, ‘고레와 난 데스까’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라는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 떠 오른 것입니다.

나는 26년 동안 이 말을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열흘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후쿠오카 여행도 끝마쳤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 아침에, 우리는 와다나베 형제 자매와 함께 비행장으로 차를 몰아 갔습니다. 나는 그 자녀들과 함께 뒷 좌석에 앉아,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내게 새로운 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26년 전에 배웠던 짧은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모다로상 모모다로상
오꼬시니 쓰케다 기비 당고
히도쯔 와다시니 구다사이나

내 노래가 곁에 계신 오틀리 형제(태버나클 합창단의 지휘자)에게 좀 폐가 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다나베 자매가 “저도 그 노래를 압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 노래를 불러 주고, 그녀가 그 의미를 내게 말해 주자, 역시 그 뜻도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못 둔 어느 일본인 부부의 이야기로, 그들이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어느 날 커다란 복숭아 모양으로 된 돌 속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발견하여, 그를 모모다로라고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가 무서운 적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해 낸 영웅담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는 26년 동안 그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 준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관심

이 쫓려 26년간 그것은 은폐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체험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결국 선한 것은 조금도 잃게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내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내가 전에 찾고 있던 모든 것이 급속히 내게 돌아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쉽게 몇 가지 말을 더 익힐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나는 이를 체험하게 된 것이 훌륭한 정신력이나 뛰어난 기억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생의 원리를 시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장로가 되실 여러분과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곳으로 돌아 가게 되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아 가려졌던 것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에 변화한다는 말이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려 한다면, 곧 영감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시일내에, 여러분이 전혀 떠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와 떠난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뉴 잉글랜드 선교부를 관장하고 있을 때, 지역 대회를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들어섰을 때, 키가 크고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뒷 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침례를 받았읍니다.” 하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74살입니다. 이제 와서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애원조로 그 모임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다만 배우고 싶어 여기 있고자 할 뿐입니다. 뒷 좌석에 앉아, 전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눈물에 젖어 그는 회한을 털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제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하여 제 곁을 떠나 버렸으니 제가 복음을 배운 것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큰 기적의 하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다시 활동화된 사람들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고 인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면,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 회원들과 함께 해 온 사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은 의사 소통의 곤란을 겪지 않으시며, 일본어나 영어에만 국한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예지를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즉시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영감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 있는 교회를 둘러 보고 스테이크 부장이나 그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보면,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교회의 원리와 절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그들이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에서 떨어져 있었거나, 혹은 아주 최근에 교회에 개종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라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과거의 그러한 세월은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게 할 때가 많으며, 그 중에는 얻기 힘든 교훈도 있어, 영감의 빛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비유를 읽어 보셨겠지만, 여기서 다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마태복음 20:1~9)

일찍 시작한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의 왕국에는 들어설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경쟁을 하게 됨을 봅니다. 팀끼리 서로 대항하며, 승자로 뽐내기 위해서 적대 관계를 맺게도 됩니다. 우리는 승자가 있는 곳에는 패자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옳은 이야기이나, 주님의 사업에서 경쟁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전의 자기 자신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실제로 변화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것도 빨리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비유를 다 읽지 않았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뒷 부분은 교회에서 활동적인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구절을 되풀이 해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 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태복음 20:8~16)

나는 수련 장로이신 여러 형제님들께서 우리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2년 후, 또는 26년 후, 또는 인생을 살아가 한 후라도 여러분이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영감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전혀 떠날 일이 없었듯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활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받고 시험받기 위해서 그의 앞을 떠나 왔읍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그를 아주 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가 우리를 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마디의 일본말을 26년 후에 다시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배운 의로움의 원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배운 것은 때로 영감의 속삭임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아주 익숙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서 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색함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에서 온전하고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산 경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련 장로와 또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여러 형제님께 간증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사와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정원회 지도자 등,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가지로 주님의 영감을 받아 소리를 높이며, 다윗이 그의 방탕한 아들 압살롬에게 “내 아들아, 돌아 오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감에 가득한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는 가정과 가족의 가정이 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되돌아 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께 영감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음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물몬경의 영웅

물 몬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도 때로는 큰 위협에 처했었습니다. 이루기 힘든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십시오.

1) 이 사람은 바벨탑을 짓는 동안 발생했던 대홍수 직후에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을 받아 가족과 친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지은 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배를 밝힐 빛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16개의 작은 돌을 주님 앞에 놓고, 그들이 빛을 발해 길을 밝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야벳 동생, 헤이고드, 라모나이 중 누구일까요? 이더서 3장 6절을 참조하십시오.

2) 이 사람은 니파이인의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운 2,000명의 젊은이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 2,000명의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그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에서 구해주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쟁 중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았지만 레이맨 인과의 싸움에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2,000명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엘마서 53장 18~19절에서 대답을 찾아보세요.

3) 이 사람은 주님의 명을 받고 가족을 이끌고 멸망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8년동안 광야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양을 건너 미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파이일서 2장 1

~2절에서 대답을 찾아보세요.

4) 그는 열살 때 예언자 엠마론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엠마론은 이 소년에게 24세가 되면 시므라고 불리우는 언덕에가 니파이 백성의 기록을 발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니파이판 위에 니파이인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니파이인의 기록을 요약하여 물몬경이라는 경전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로나이, 코리앤티오어, 물몬 중 누구일까요? 물몬서 1장 2~4절에서 대답을 찾으세요.

5) 이 레이맨인 예언자는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여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화가 나서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오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명하시는데로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높은 성벽에 올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활도 쏘아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여, 그들은 그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한 후 성벽을 뛰어 넘어 그의 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엠몬, 사무엘, 코리호어 중 누구일까요? 힐라맨서 13장 2~4절, 16장 1~7절에서 대답을 찾으세요.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친구가 친구에게



경건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며, 우리도 또한 완전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그리스도다운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여 주는 태도인 경건성입니다. 경건성을 지닌 사람은 위엄을 지닌 사람입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경건이란 조용함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주님과 그의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회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해당됩니다.

가정에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경건성이 사라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어린이입니다. 욕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보아야 합니다.

집회 시간에 경건한 것은 주님의 참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갖는 책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예배당에 들어오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여 주는 경건한 태도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경건성은 모든 교회 회원이 교회의 집회에 참석할 때 기억해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나 경건성은 예배당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자세를 갖는 법을 배운 어린이는 복도를 뛰어 다니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나가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집회 시간 중에 자리를 일어서면 말씀하는 분이 당황하게 됩니다. 모임 중 주의를 끄는 행동도 분위기에 해를 끼칩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 이미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의깊게 듣고 말씀하시는 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성찬식에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껏속말로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부모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어린이는 아름다운 음성을 가졌기 때문에 분위기를 경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찬은 오른손으로 취하십시오.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되는 동안에는 구세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동생이 있는 어린이는 동생을 놀리지 마십시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생이나 어른들도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경건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면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인 신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전 밖에 새겨져 있는 "주님께 성결"이란 말씨는 그 성스러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경건한 느낌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언젠가는 모두 주님의 신전에 들어갈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기록하고 성스러운 경험은 우리가 구세주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줍니다.

나는 어린이 여러분께서 항상 경건하도록 노력하고, 때가 이르면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건물인 주님의 신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본 제이 페더스토운



철심인 제일 정원회

용감했던 순간

키이드 크리스텐슨/글, 그림



1.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15세에 샌드위치 섬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4년 후에 그는 귀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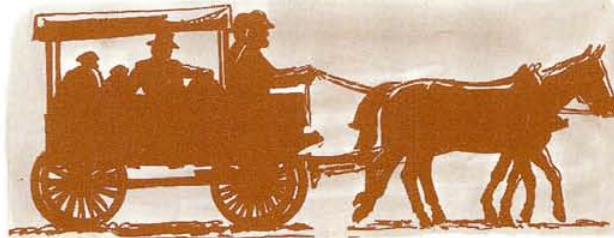


2. 3명의 다른 선교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항을 향해 떠났다.



3. 도중에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다른 성도들을 만났다.

4.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몰몬은 거짓된 풍문 때문에 심한 질투와 박해를 받았다. 윌리엄 월 형제는 자신이 몰몬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로스안젤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할 뻔 했다.



5. 나이 어린 조셉과 다른 사람은 한 우체부와 함께 밤새도록 마차를 타고 산 버나디노로 갔다.



6. 아침이 되어 이들은 식사를 준비하려고 어느 목장 근처에서 마차를 멈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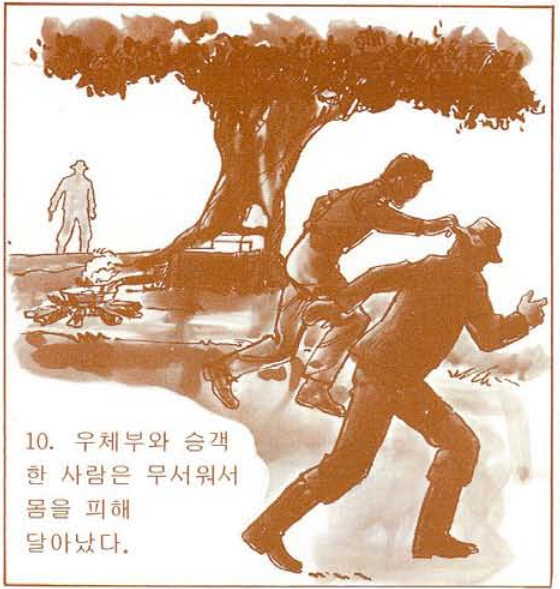
7.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조셉은 조금 떨어진 물가로 말들을 데리고 갔다.



8. 그때 마차에 가득 탄 술에 취한 악당들이 총을 휘두르며, 몰몬을 죽이려 산 버나디노로 간다고 떠들며 그곳으로 다가왔다.



9. 그중 한 명이 우편 마차쪽으로 다가갔다.



10. 우체부와 승객 한 사람은 무서워서 몸을 피해 달아났다.



12. 그 악한은 물몬에 대해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권총을 휘둘러댔다.

13. 조셉은 겁이 났으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곳바로 캠프장으로 걸어갔다.



11. 바로 그때 조셉이 캠프 근처에 도착했다.



14. 그 악한은 욕을 지껄이며 조셉의 얼굴에 총구를 갖다 대고

“네 놈도 물몬이지?” 하고 물었다.



15. 조셉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 나는 철저한 물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16. 이처럼 용감하고 정직한 대답에 그 악한은 당황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총을 거두었다.



17.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악수하자, 자신의 믿음을 떳떳이 받을 수 있는 너와 같은 친구를 만나 오�히려 기쁘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
 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
 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
 하게 하였느니라”(출애굽기 20:8~11)

안식일은 평일과는 다른 날입니다. 이 날에

는 마음과 행동에서 경건성이 우러나와야 합
 니다.

안식일은 깨끗한 날입니다.

우리 구두도 반짝입니다.

옷도 깨끗합니다.

머리도 단정합니다.





안식일 상자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슨
캐드린 에이치 반조



안식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이 날을 보냅니다.

우리는 친구를 교회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경건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 배웁니다.

집에서도 조용하게 행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다.

안식일은 경배와 휴식의 날이므로 다른 날에 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웃을 방문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비유나 그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동생들과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선교사나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경전을 한장 이상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세어보거나 적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의 인물을 그려 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을 그려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남모르게 선행을 합니다. 성도의 벗 5월호(1977년)에 있는 대로 개인 일지를 작성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나 시를 암기합니다.

성도의 벗 어린이란을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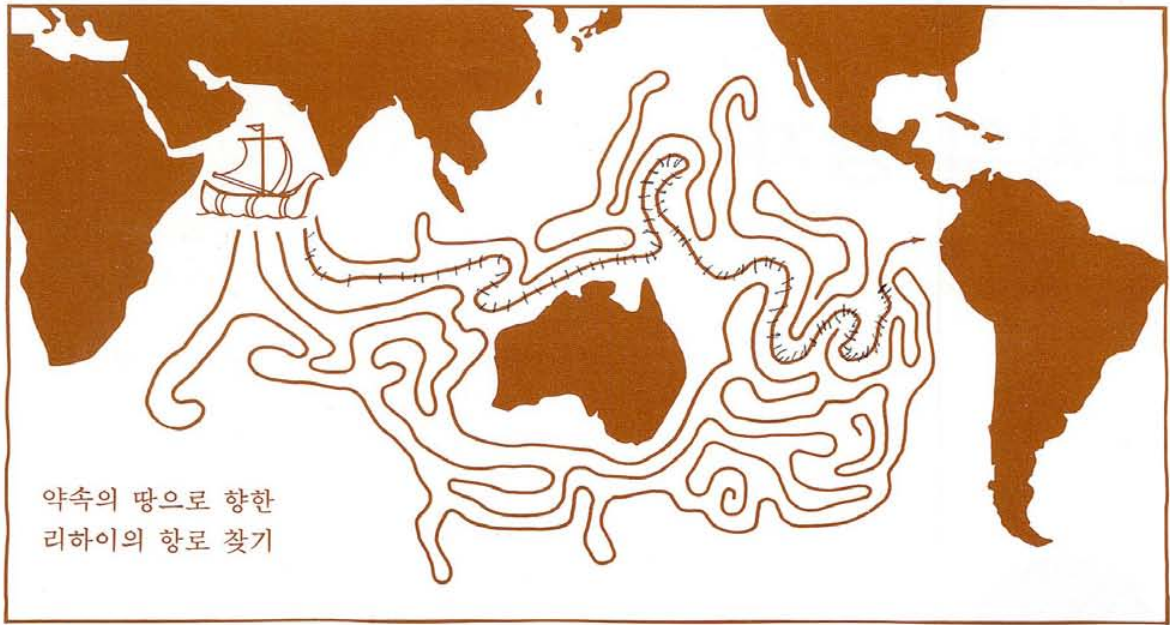
친구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선조에 대해서 배우고 계보 양식을 작성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작은 상자나 향아리나 기타 용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활동을 종이에 적어 각각 오려서 여러분의 안식일 상자에 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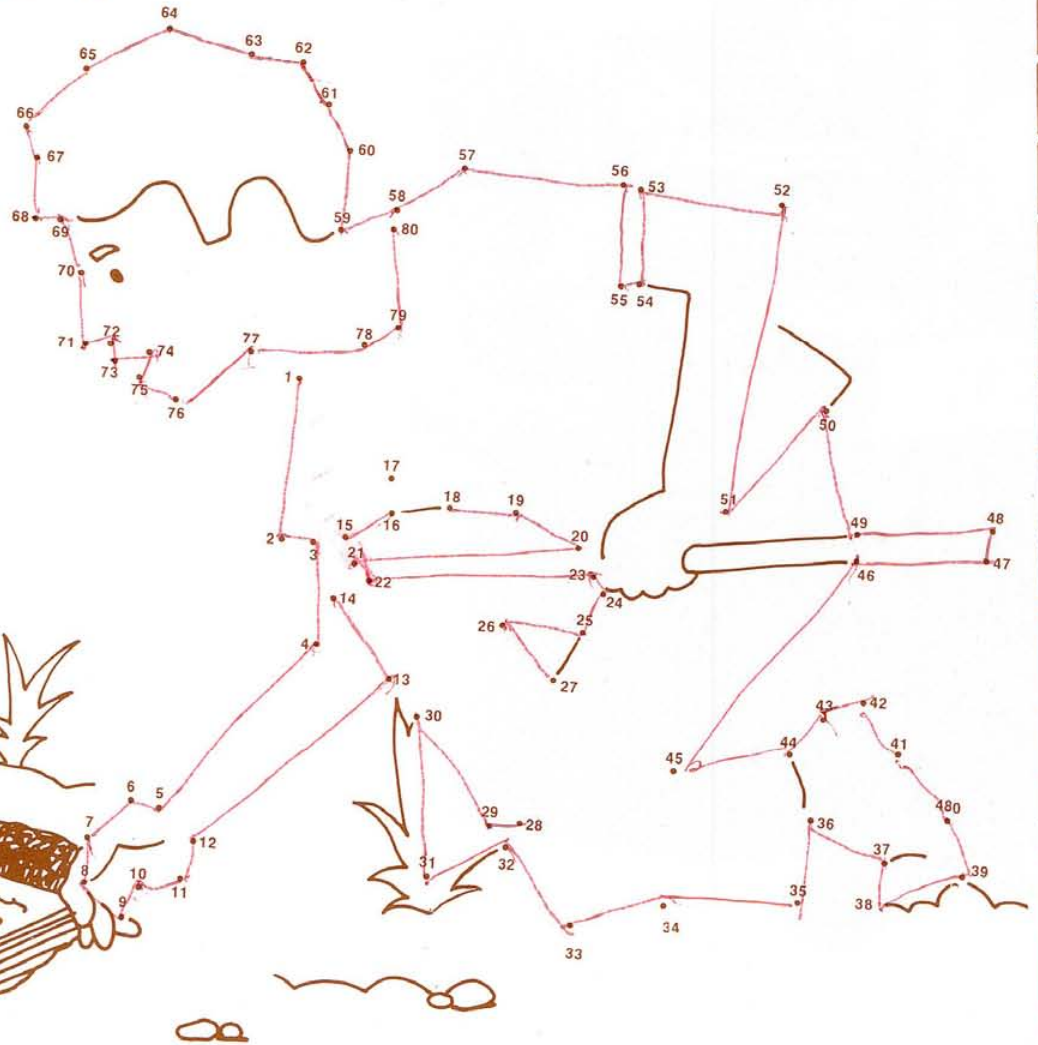
매주 안식일에 이 상자에서 한 가지의 제언을 꺼내면, 경건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



약속의 땅으로 향한
리하이의 항로 찾기



심심풀이



점 잇기





철주를 내려치라

비 로이드 포엘만/글
개리 스미스/그림

이 강철봉에 입힌 시멘트를 모두 부셔 버리시오"라고 십장은 나에게 큰 메를 건네 주면서 말했다. 나는 나를 주시하는 그에게 확신을 주고저 넓게 발을 벌리고 함마를 머리 위로 치켜 든 후 시멘트 덩이를 내려쳤다.

GARY SMITH

나는 이가 빠진 거대한 빛과 같은 13개의 철주가 박힌 긴 철책을 바라 보았다.

여섯... 일곱... 여덟 번씩이나 힘껏 같은 지점을 내려쳤으나 함마의 손잡이에서 심한 충격만을 느낄뿐 시멘트 덩이는 부서지지 않았다. 부스러기 하나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잠시 함마를 땅에 놓고 오른쪽 어깨를 주무른 후 나는 다시 머리 위로 함마를 높이 들고 내려쳤으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십장이 1분 이상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당황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연장 창고로 가면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도구를 갖다 주지”라고 말했다.

발목까지 오는 작업화를 신고 소가죽 장갑을 작업복 뒷 주머니에 끼어 넣고 작업장에 오면서 나는 지난 이틀 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또 “오늘로서 이 일도 마지막인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선교사로 나갈 날이 삼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처음 몇달 동안의 선교 비용을 충당할 기금을 마련해야 했다.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가족이 치루더라도 선교사로 나가는 나를 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실제로 그러한 희생이 어떤 것인가도 잘 알고 계셨다. 나는 형인 론이 선교사로 있는 동안 가족이 그를 돕기 위해 식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또한 가끔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을 론에게 보내는 돈에 보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도 알았다.

그렇다. 나는 가족이 나를 위해 감

수할 희생이 무엇인가를 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나는 이번에는 더 큰 힘으로 내려치려고 함마 손잡이 쪽으로 더 내려 굳게 잡았다. 몇차례고 내려쳤으나 오지부동이었고 끝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하면 더 힘있게 내려칠 수 있을까? 왜 시멘트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웬만큼 일을 해놓기 전에 십장이 오면 곤란한데”라고 나는 연장 창고를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월요일 아침에 나는 십장에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대학을 중단했으며, 이제 몇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말하며 그가 나에게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왜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려드는 거지?” 그 후로 그는 나를 끌려줄 셈으로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장이고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당장이라도 그만 두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다.

나는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여 불에 탄 오래 된 나무 담을 새로 벽돌로 쌓는 버트 콧프리를 돕던 지난 일주일이 훨씬 편안했었다. 세 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그 중 두 곳에서는 건축 선교사로 일했던 친절한 버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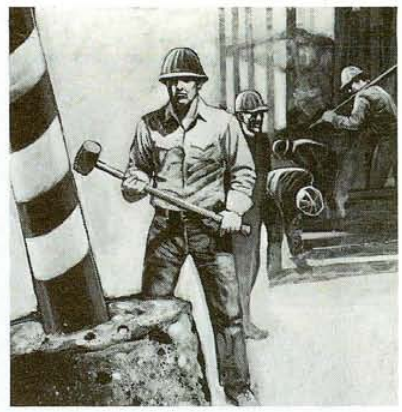
회사측에서는 벽을 쌓는 일을 돕도록 열흘간 나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버트와 나는 열심히 일해 일주일에 말은 일을 끝내버렸다. 그는 내가 경험

이 없고 일에 서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나는 열심히 일했으며, 그도 나의 의도를 알았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버트는 나에게 십장이 휴가를 떠나고 없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으며, 나는 월요일 아침 일터에 나와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그렇지만 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는 벌어보지 못한 돈을 이곳에서 벌었지만 내가 받은 대가 이상으로 일을 한다면 십장이 일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가 빠진 거대한 빛과 같은 13개의 철주가 박힌 긴 철책을 바라 보았다. 주차장의 차가 뒤쪽 건물에 흘러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 전에 세워진 것들이었다. 3미터 간격으로 땅에 13개의 큰 구멍을 파고 철주를 박은 것이다. 각 철주를 땅에 박고는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넣어 굳혔다. 최근에 이 철책이 트랙터의 힘으로 한꺼번에 모두 뿔뿔히 철주를 감싸고 있는 시멘트 덩어리와 함께 길가에 버려졌다.

나는 연장 창고쪽으로 뻗어있는 아스팔트 위의 모래를 밟으며 긴 환숨을 내쉬었다. 이마에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힌 것이 다행이었다. “자, 이걸로 해보게”하며 십장은 내게 더 무거운 함마를 내주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연장은 아니었다.

나는 작은 함마를 그에게 주면서 미소를 지었으나 그는 정직하지 못한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는 잠시 동안 더 나를 지켜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다른 곳의 인부를 감독 하러 가 버렸다.

“별 차이가 없잖아, 더 무겁고 힘만 들지” 하며 나는 함마를 시멘트에 내려 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몇 번을 더 내려치자 손바닥이 얼얼해 왔다. 여전히 시멘트 덩어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정도로 일을 해서 마치려면 적어도 사흘은 걸릴 것 같았다. 점심 때까지도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만 같았다. 이 사흘 동안 나는 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무척 고심했다.

그 해는 1954년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 때문에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찾던 때였다. 몇 안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무 경험도 없는 20세 청년이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몇 차례를 더 시도한 후 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느껴져,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다. 무거운 함마를 땅 위에 놓고 좌절감을 달래기 위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이 문제를 주님께 상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무릎을 꿇거나 눈을 감지도 않은 채로 나는 큰 소리로 주님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진지한 자세로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은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나는 그분도 내가 가기를 바라

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일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지만 이제 나는 이 일을 계속 오래 동안 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께서 함마를 든 많은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라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생애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도 빨리 분명하게 오기는 처음이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매우 분명하고 강한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너무도 간단한 해결 방법이었다. 경험이 있거나 더 총명했다면 벌써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그 방법이 주어진 것이다.

“시멘트 덩어리를 치지 말고 철주를 치라”라는 지시가 마음속에 주어진 것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서 나는 함마를 치켜들고 시멘트에 붙은 철주를 대어섯 차례 내려쳤다. 큰 시멘트 덩어리가 금이 가더니 떨어져 나갔다. 나는 철주에 가한 충격이 시멘트를 진동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나는 함마의 무게를 잊었다. 새로운 힘을 얻은 나는 계속해서 차례대로 철주의 시멘트를 부셔버리기 시작했다.

2시간이 되기도 전에 13개의 철주 시멘트를 모조리 부셨고 철주를 한 곳에 쌓아놓았다. 함마를 어깨에 맨 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는 십장에게 갔다.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도로에서 철주를 치워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십장은 내가 그 일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가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시멘트 더미를 보았으며, 놀란듯이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눈을 크게 떠보며 깜박여 보았다. 입이 약간 벌어졌다. 근 1분 동안 잠자코 서서 철주와 시멘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잠시 더 있더니 다시 그를 따라오라고 했다. “자, 이제 다른 일을 주지.”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터에 도착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로이드, 원하는 기간까지 우리와 함께 일을 합시다.”

나는 선교 본부로 들어갈 때까지 약 3개월간을 그곳에서 더 일했다. 그는 내가 나의 그룹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는 날까지 열흘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감격스런 아침 이후로 그는 우리 교회나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나의 계획에 대해 내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시멘트 대신 철주를 치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주셨다. 1954년 11월말경 선교지로 떠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모세가 세상의 역사인 구약전서 처음 다섯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는 배경과 자료와 기록과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다섯 책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기글을 쓰고,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과 그가 받은 계시, 생각, 느낌, 풍부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에게 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갖지 아니한 다른 경전을 기록하기 바라노라 하시며

“니파이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간직하고 있는 기록을 가져 오라 하시니라.

“니파이가 기록을 가져다 그 앞에 놓으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를 바라보시며 이르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종 레이맨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저도 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며 저들을 가르쳐 은총을 베풀 것을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며 저들에게,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님이시여, 그러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모두 이루어졌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많은 자 앞에

나타나 저들을 가르치고 은총을 베풀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니파이가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니, 명하신 대로 기록하니라”(니파이삼서 23:6~13)

기록을 하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책망을 받은 것이 내가 아닌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리하이가 미대륙에서 생활한 초기에 그의 아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신 일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내 생애에 행한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노라....

“내가 기록하는 바가 진실함을 알며, 또한 내가 아는 바대로 나 스스로 기록하노니”(니파이일서 1:1, 3)

이 위대한 기록은 그의 백성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 생활에 일어났던 사건도 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복음의 회복과 개인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이 진실되고, 정성들여 기록된 개인에 관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놀라운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조부모의 일지를 찾아, 그들이 겪은 시련과 기쁨을 느껴보고, 선조의 경험과 신앙, 용기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고, 부모가 기록하지 못한 선조들의 중요했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일지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에워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방법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변화무쌍하여 여러분의 기록이 후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의 경험, 대인 관계,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등이 일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은행의 월간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서적 수집가는 그의 큰 서재를 둘로 구분하여 놓았는데, 하나는 자서전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였다.”

위인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루 아침에 위인이 되지 않았으며,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타고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들이 있기까지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일지는 물론 여러분의 일지에도 각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있었던 문제들과 이를 극복한 여러분의 방법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지는 결점없는 자신을 찍은 사진보다는 거짓없는 자기 영상을 담아야 합니다.

미덕을 질은 색으로 돋보이게 하고 악덕을 흰 물감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을 두드러지게 그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이건 남의 것이건 인생의 추한 면을 깊이 파고 드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존경심을 갖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실대로 표현되어야 하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영적인 경험으로 가득찬 긴 생애도 한 가지 추한 이야기로 빛을 잃게 됩니다. 훌륭했던 생애가 왜 한 가지의 추한 사실로 빛을 잃어야 합니까?

훌륭한 전기 작가란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한 이성에 의존해야 합니다. 적합하지 못한 것들은 잡초를 제거하듯 없애고, 강하고 고상하고 흥미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을 한 쌍씩 묶어 46인의 생애를 그린 플루타크의 영웅전에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각인의 사소한 면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들의 가장 숭고했던 면을 요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지는 여러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깊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고상하고 귀한 경험을 맛보았을 수 있습니다. 번득이는 섬광과 성실로 가득찬 미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상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기억이 생생하고 참된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지금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애와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담, 타락에서의 회생, 어려웠던 일을 각고 끝에 성취한 이야기보다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치있는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록 중에는 일상사도 실리겠지만, 여러분의 후손에 의해 인용될 값진 구절도 실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영원히 보존될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천사가 영원히 그 책에서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사와 뜻깊었던 생각, 업적, 실패, 유대와 승리, 인상과 간증을 일지에 적으십시오. 구세주께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못한 자를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삼 27:2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그가 보이신 모범을 모방이라도 해야 합니다.

교사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모범을 따름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늘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관해 말하면서 이 원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교사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과 교사의 모범이 반원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외침으로써 구세주의 성역의 길만을 예비하였습니다. 회개를 외친 그의 외침 속에는 모든 사람이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세주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반원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 그와 뜻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길을 예비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밝히라

우리는 길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들의 빛이 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이 백성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니삼 12:14, 16)

우리의 사업이 그의 사업이 되고, 반원들이 그의 빛으로 밝혀질 때 그들은 주님과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 대로 행하라.”(니삼 18:24)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칠 빛이 먼저 우리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준비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본 시리즈의 첫번째 기사인 “교수/학습 관계” 도표 참조.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기 싫어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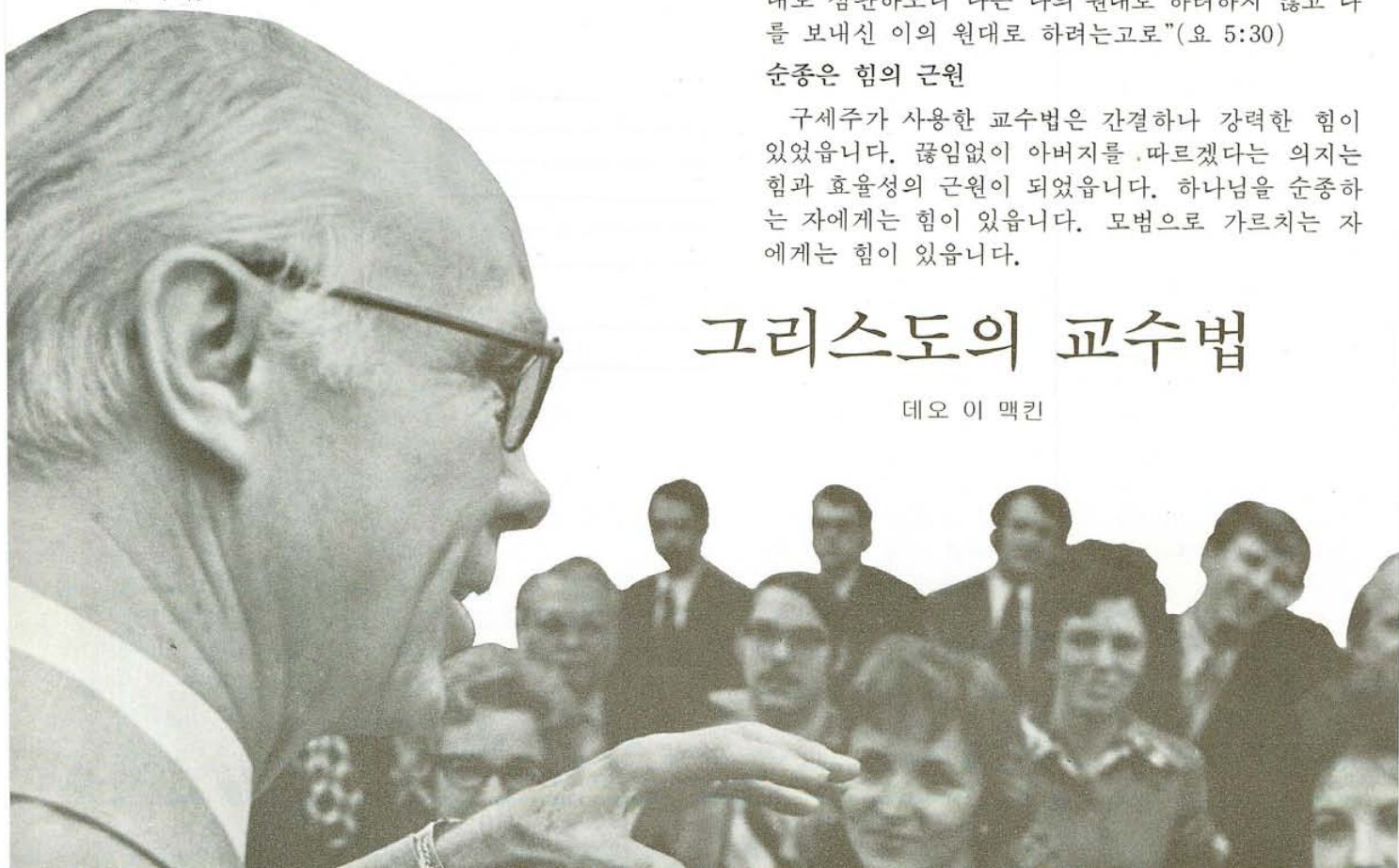
또한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요 5:30)

순종은 힘의 근원

구세주가 사용한 교수법은 간결하나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힘과 효율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모범으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수법

테오 이 맥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는 “말보다는 모범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6월호)

자기가 가르치는 위대한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교사는 영을 통해 그가 가르치는 말에 힘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저들의 말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단 앞에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였느니라”(엘마 17:4)

누구든지 원한다면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개심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말씀은 순종심에 찬 교사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12)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교사인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의 효율성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수반된 모범이 우리 교수법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베드로전서 5:2~4)

자기 반성

교사가 자신의 모범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판사의 직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전파에 전념한 아들 엘마는 교회 회원을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로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엘마서 5장에는 자기 반성 과정을 통해 교회 회원을 인도하도록 의도된 42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빛이라고 한 구세주의 말씀과도 같이 엘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 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보았느냐?...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너희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 몸에 지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엘마서 5:14, 19)

이러한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루 하루를 살아나가기 위해 엘마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 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희게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라, 너희는 교만을 던져 버렸느냐?... ”

“너희 중에 시기심을 버리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형제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 저에게 화 있을 지어다....”(엘마서 5:26~31)

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나를 알아 보기 위해서 엘마는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양을 많이 가졌으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 이리가 양떼에게 덤벼 들어 양을 잡아 먹게 하겠느냐? 보라 이리가 양떼에게 들어오면 목자가 저를 몰아내지 않겠느냐? 끝날에 목자는 힘을 다하여 이리를 쳐엎애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가 너희를 그의 울 안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의 양이 됨이요, 굶주린 이리가 들어가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 엘마는 내게 명하신 이의 말씀을 빌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를 지켜 행할지어다.”(엘마서 5:59~61)

엘마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말한 그의 부친의 모범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거든, 너희를 가르치는 자나 또는 너희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모사이야서 23:14)

준비하라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경전을 공부하며, 영의 권세로 그 내용을 음미하고 기도하며 듣고 배우려 합니까? 배운 대로 실행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느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까?

만일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면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이 되는 다음의 질문과 대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

모범의 힘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부패하는 현대의 도덕과 정신적인 지주를 우리의 기독교인다운 모범과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생활로서 구제하고자 한다면 더욱 정신을 차려서 복음의 원리와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딛고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와 의의 모범이 되어 생활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난 성품을 가진 자를 더욱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그 모범의 힘은 큰 위력을 냅니다. 이러한 사람의 용모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덕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철인에게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을 위하여 좌우명이 될만한 훌륭한 옛 사람들의 재질을 셋만 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첫째, 모범으로 가르치고, 둘째도 모범으로 가르치고, 셋째도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찌기 세상에 알려진 예가 없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또한 그는 그가 가르치시는 바를 실제로 생활하여 모범으로 보이신 까닭에 그의 가르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치 다른 사람들이 서슴치 않고 본받아 생활하여 축복을 받을 만한

본보기로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네가 바로 현재의 너로서 내게 전하는 울림으로 인하여 나는 너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겠노라”고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분이 되노라.”(니삼 18:16)

이와 같은 우리 구세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생활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품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 하시고 그 입에 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벧전 2:21~23).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이 성구는 선한 모범됨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파이의 기록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가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거룩하였으나 육체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세상에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순종함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이려 함이니,

“그가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느니라.

“이는 또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끝고 들어가야 할 문이 험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저들 앞에 본이 되신 것이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 ‘나를 따르라’ 하셨으며,... ...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대로 행하라.”(니이 31:7, 9~10, 12)

이 권고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니파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나니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니이 31:15~16)

이 가르침에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니파이인의 예언자의 아들 코리엔톤은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어리석게도 창녀 이사벨에게 빠져 그의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소행으로 낙심한 엘마는 그

의 아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
(엘 39:11)

진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웅변보다 낫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어린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기를 가르쳐야 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특히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청결한 생활을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절박하고 미묘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모범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 자녀 앞에 자녀가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선한 모범을 계속하여 보여 주면 어린 아이들은 차차 마음을 돌려 사악함 보다는 의로움을 택하겠다는 뜻이 커질 것입니다.(설교집, 14권 195페이지)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본받아 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부모는 험악한 얼굴을 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선행과 명랑한 모습과 친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공평치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다.”(같은 책, 192페이지)

“.....부모는 자녀를 회초리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르쳐야 하며 훌륭한 모범을 보여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같은 책, 12권, 174페이지)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남을 속이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며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정직하고 참되거라. 유덕하고 친절하며 부지런하고 신중하고 또 선행에 힘쓰라’고 한 부모의 가르침을 늘 기억했노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은 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같은 책, 14권, 195페이지)

경전에서 모범에 관하여 이야기한 기사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6, 8~12)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지도자와 교사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의 원칙대로 살고 표준을 지키며 높은 이상을 생활하여 복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이러한 것을 등한히 하는 생활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행해 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먼저 스스로 해야 하겠습니다. 위선은 정죄를 가져 옵니다.

침례 회망자는 침례를 받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도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추어 합당하지 않을까요? 기타 모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결점은 감추고 공명정대하게 부름의 정신에 입각한 봉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책임은 물론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이야기한 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수고를 그칠진대 정죄를 받을 것인즉, 저들이 비록 강박할지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자,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동안 다 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이를 다하여 온갖 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모로 9:6)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생활하고 합당한 표준을 지키면 의로운 뜻을 지키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높은 이상대로 생활하기란 심히 어렵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의 법에 의하건대 세상 만사에는 표준이 있다.”(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정직, 유덕, 의로움, 도의, 지혜의 말씀, 선행에 관한 모든 계시의 말씀 등에 좇아 생활할 때 우리는 남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행하는대로 너희도 보고 행하라”고 할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임무와 사명과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 특히 우리의 가족과 자녀가 따라 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